

5주차

한국전쟁과 여성 (1940-1950년대)

김 지 민

학습목차

학습목표

학습내용

01. 해방과 분단, 미군정기

- 해방과 분단
- 여성단체의 등장
- 부녀국의 활동
- 공창제도 폐지

02. 전쟁과 여성의 역할

- 한국전쟁 발발의 배경
- 여자의용군
- 여성의 '후방사업'

03. 전쟁의 기억 - 피난과 피해

- 피난하는 여성
- 강간과 학살

04. 전후 사회의 여성상

- 여성의 경제활동
- 전쟁미망인, 자유부인, 그리고 아프레걸

4차시

전후 사회의 여성상

학습목차

학습목표

- 전쟁이 끝난 후 여성들에게 맡겨진 새로운 역할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.
- 전후 한국 사회에서 여성 역할의 변화와 그에 대한 사회적 시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
학습내용

- 여성의 경제 활동
- 전쟁미망인, 자유부인, 그리고 아프레걸

여성의 경제 활동

전쟁은 끝났지만...

- 수많은 사망자, 행방불명자, 이산가족,
그리고 황폐화된 삶의 터전

이번 차시에는...

- 전후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 변화와 그에 대한 시선

전쟁이 바꾼 인구와 사회 구성

- 100여만명의 20-30대 남성들이 병사 혹은 노무자로 동원 (남성인구의 30퍼센트)
- 전쟁 중, 그리고 전후에도 남성의 부재로 여성들이 생계부양
- 여성의 사회 활동 증가

여성의 사회 활동

- 자영업 분야 종사 여성 증가
- 8만명(1949) → 59만명(1951)

전후 서울의 변화

- 사상, 경제, 생존의 이유로 도시로 모여 든 사람들
- 여성들도 구직과 구호를 위해 도시로 이동

장사하는 여성들

- 다방, 양품점, 화장품 가게, 담배 장사, 행상 등
- 여성들이 장사에 나서면서 소매상의 비율이 급증

일용노동

- 전통적인 여성 노동 (바느질, 재봉, 식모살이)
- 지게꾼, 제초작업, 도로보수 등
- 남성에 비해 30~50% 정도에 불과한 낮은 임금

전후 여성의 경제활동

- 전통사회에서 가부장적인 가구단위 경제활동 참여와 다름
- 남성중심 가구 단위의 경제에서 분리되어 여성이 주도한 활동
- 생존을 위한 활동, 독립적 주체로서 사회생활

“ 이제는 집집마다 남자들은 여성한테 고개를 굽실거리면서
용돈을 얻어서 주는대로 타서 쓰게끔 되었다.
기막힌 여인천하다. ”

박종화, “解放后의 韓國女性,”
여원, 1959년 8월호, 74쪽.

“ 한국의 남성들은 동란을 겪음으로서 해가 훨씬 더 쇠퇴되어 있다는 사실은 비극이라 아니 할 수가 없을 것이다. 피둥피둥하고 이글이글한 여인이 아니면 뺨들한 얼굴에 살이 서고 핏대선 아내에 축 느러져서 죽여줍쇼 허우적 거리는 남편의 일행을 많이 본다.
딸도 아니요 며느리도 아닌 그저 비극적인 내외이다.

“

마해송, “韓國女性の悲劇”,
여원, 1956년 7월호, 158-9쪽.

여성의 활동에 대한 지식인들의 시선

- 여성의 사회 활동보다는 가정이 중요
- 전쟁미망인에 대한 엄격한 잣대
- 경제활동하는 여성들: 기존의 공-사 영역을 넘나듦

전쟁미망인, 자유부인, 그리고 아프레걸

한국전쟁이 남긴 상처

- 남한에서 약 150만명의 사상자와 실종자
- 주로 청장년층 남성의 인명손실
- 수많은 전쟁미망인 양산

전쟁미망인

- ‘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여성’을 지칭
- ‘미망인’: 함께 죽어야 하는데 아직 죽지 않은 아내
- 행방불명, 납치되거나 피살된 자, 전쟁으로 사망한 자의 부인 등

전후 사회 미망인에 대한 두 가지 시선

- 1 사회적 보호의 대상:
 - 미망인 중 대다수가 빈곤상태
 - 저학력
 - 부양가족의 생계

전후 사회 미망인에 대한 두 가지 시선

1 사회적 보호의 대상:

- 국가에서 ‘모자원’ 설치 – 부녀와 자녀들 수용
- 수산장: 미망인이 재봉기, 편물기를 이용해 옷을 만들 수 있는 시설
- 연금정책 실시

전후 사회 미망인에 대한 두 가지 시선

2 규제 대상

- 남편 없는 여성에 대한 편견
- 현모양처 개념과의 관계?

“ 이 사회는 당신 (남편) 없이 산다는 이 사실만으로 대접을 하여주지 않습니다. 건전한 한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지요. 진학문제만 하여도 입학원서를 쓸 때에 혼자 사는 여자의 자식은 경제적으로 곤란하다는 선입관념에서 행여 입학에 지장이 있지나 않을까 하여 허위로 기재하였습니다. 딸아이의 결혼문제에 있어서도 아버지 없는 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혼을 여러 번 거절당했습니다. 관청에 볼일 보러 갈 때, 치마를 두른 여인이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고, 대등히 할 수 있는 사무처리 등에도 남자를 내세우라할 때에는 어떤 의분조차” 느꼈다… ”

이주현, “미망인의 수기 -
꿈속에라도 돌아오소서,” 여원 6월호, 181쪽.

“ 가장 큰 어려움은 동네 사람들의 눈이었다. “어린 자식새끼”
생계문제가 아니라, 동네 남정네들이 도와준답시고 “지 여자처럼” 대하거나
“동네 여편네들이 자기 남편 뺏을까봐” 늘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것...
미망인에 대한 세상인심 때문에 늘 주눅들거나, 서러운 인생을 살아왔다...”

- 추정월 할머니의 구술, 이성숙, “한국전쟁에 대한 젠더별 기억과 망각,”
여성과 역사 7, 2007, 37쪽에서 재인용.

미망인의 존재가 일으킨 변화들

- 여성이 가족을 부양함으로써 가정 경제권 장악
- 자녀들의 생계 및 교육에 대한 전적인 책임, 절대적 영향
- 기존의 가족 질서를 바꾸는 영향
- 법적 변화 - 여성이 법적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것이 가능

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

- 사회 활동을 하는 여성이 향락과 허영에 빠지기 쉽다는 주장
-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전통적 여성상을 파괴할 것이라는 경계

그 배경은?

- 전후 물질적, 정신적 공황에 놓인 한국사회
- 미국 문화 유입과 그에 대한 이중적 시선
- 민주주의, 자유와 평등을 지향
- 자유와 평등이 전통가치를 무너뜨린다는 경계 -
위기 의식의 핵심 ‘여성의 윤리적 타락’

‘전후파’ 여성의 등장

- 전후파: 전쟁 이후 신세대
- 아프레걸 (apres-girl), 자유부인
- 허영을 일삼고 정조 관념이 없는 여성, 성매매 종사 여성, 댄스홀에 출입하는 기혼여성과 전쟁미망인 등



소설 자유부인 표지 (1954)



영화 자유부인 팸플릿 (1956)

댄스홀과 댄스 교습소

- ‘사회악의 근원’
- 정비석 소설 《자유부인》(1954)과 한형모 감독의 영화화(1956)

‘미망인’과 ‘성적 문란’의 관계?

- 여성들을 통제할 남편의 부재 때문
- 아프레걸, 자유부인 - 전쟁 중 가부장제 질서의 붕괴
현모양처의 이상을 복구하기 위한 노력이자 허상

어느 전쟁미망인의 이혼청구사건 (1954) - 미망인에 대한 사회적 감시의 시선

- 전쟁 중 남편이 행방불명된 김모씨 (27)
- 영국군인과의 결혼을 위해 전남편과의 이혼소송 제기
- 민법 제813조 9항: ‘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하여
음신조차 없으면 이혼할 수 있다’
- 법원의 소송 기각

이혼소송 기각(1954)

- ‘괴뢰의용군으로 납치된 사실 확인되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하다고 인정이 불가능하다’
- ‘실종자의 아내는 통일이 될 때까지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다’
 - 남편이 부재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미망인에 대하여 ‘행불자의 아내로서 정조를 지켜야 한다’는 사회적 통제

박인수 사건 (1950년대 중반) – 미혼 여성에 대한 성적 통제

- 미혼 여성 70여명을 상대로 혼인 빙자 간음 혐의
- 박인수, “상대한 여자들 중 처녀는 단 하나”라는 진술로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비난
- 1심 무죄 선고: “법에 비추어 가치 있고 보호할 사회적 이익이 있는 정조만을 법은 보호하는 것”, “정숙한 여성의 건전한 정조만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”
- 2심 유죄 선고: “여성 질서의 확립을 위한 조치”

박인수 사건 (1950년대 중반) - 미혼 여성에 대한 성적 통제

- 박인수의 사기 행위보다는 여성들을 비난하는 여론
- 여성의 성을 ‘정상 / 비정상’, ‘정숙한 여성 / 문란한 여성’으로 이분화
- 결혼관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에 대한 사회적 단죄

다음 강의에서는...

- 한국전쟁 이후 자리잡은 미군기지와 여성문제

SOURCES

[출처01] e뮤지엄(<https://www.emuseum.go.kr/>), 국립민속박물관 소장(소장품번호: 민속 67895)

[출처02] e뮤지엄(<https://www.emuseum.go.kr/>), 국립민속박물관 소장(소장품번호: 민속 56041)

- 김미선, “한국전쟁 이후 ‘여성의 경제(Female Economy)’의 형성: 양장점 운영을 중심으로,” 《한국여성학》 38(1), 2022.
- 김상숙, “한국전쟁 전후 여성 민간인 학살과 전시 성폭력,” 《사회와 역사》 131, 2021.
- 김수자, “한국전쟁과 월남여성들의 전쟁경험과 인식-지역 차별인식과 결혼관을 중심으로,” 《여성과 역사》 10, 2009.
- 김형곤, “한국전쟁 사진에 나타난 여성,” 《언론과학연구》 11(2), 2011.
- 박용규, “미군정기의 여성신문과 여성운동,” 《한국언론정보학보》 19, 2002.
- 박유미, “해방 후 공창제폐지와 그 영향에 관한 연구,” 《역사와 실학》 41, 2010.
- 신동훈, “한국전쟁 체험담을 통해 본 역사 속의 남성과 여성-우리 안의 분단을 넘어서기 위하여,” 《국문학연구》 26, 2012.
- 윤정란, “한국 전쟁과 장사에 나선 여성들의 삶 - 서울에 정착한 타지역출신들을 중심으로,” 《여성과 역사》 7, 2007.
- 이성숙, “한국전쟁에 대한 젠더별기억과 망각,” 《여성과 역사》 7(7), 2007
- 이임하, “한국전쟁과 여성성의 동원,” 《역사연구》 14, 2004.
- 이임하, “한국전쟁과 여성의 삶 - 남성들의 부재,” 《진보평론》 16, 2003.
- 이임하, “한국전쟁이 여성생활에 미친 영향 - 1950년대 ‘전쟁 미망인’의 삶을 중심으로,” 《역사연구》 8, 2000.
- 임미진, “해방기 민주주의 선전과 여성해방-가정잡지 <새살림>을 중심으로,” 《한국학연구》 47, 2017.
- 정현백 외, 《글로벌시대에 읽는 한국여성사》 (사람의무늬, 2016).
- 주진오 외, 《한국여성사 깊이 읽기》 (푸른역사, 2013).
- 최지현, “해방기 공창폐지 운동과 여성 연대 연구 - 김말봉의 ‘화려한 지옥’을 중심으로,” 《여성문학연구》 19, 2008.
- 폴 크레이머, 이남희 역, “클린턴, 남성성, 테러와의 전쟁,” 《여성과 사회》 14, 2002.



YONSEI
UNIVERSITY
MIRAE CAMPUS

K-MOC

기획·조정

이화진·정다영

교안

이유정·윤승희

영상

김록현